



# 시위 부상자들의 한과 꿈

80년대 이후 민주화투쟁의 현장에서는 시위부상자가 잇따랐다. 그들 중 일부는 눈멀고, 허반신이 마비되고, 뇌기능을 잃는 등 회복 못할 손상을 입었다. 육신을 민주화운동과 맞바꾼 시위부상자들의 현주소를 찾아본다.

신준영(본지 기자)

## '눈'이라 불리는 학생들

9월 2일 경희의료원 안과병동 1105호실. 창가의 병상에 환자용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린 한 젊은이가 누워 있었다. 병상 명패의 이름은 정경수(23), 경희대 사학과 1학년이다. 범민족대회 이틀째인 8월 13일 외국어대 정문 앞에서 전경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오른쪽 안구가 파열된 것이다. "최루탄 연기로 주위가 온통 희뿌연 속에서 백골단들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물러왔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경희대 학생들은 범민족대회를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남은 문제는 사람들을 대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원천봉쇄를 뚫고 들어오기에는 경희대 정문 앞이 너무 좁아 참가자들이 인접한 외국어대를 통해 경희대로 진입할 계획이었고 저는 외국어대 정문 사수를 맡았습니다."

89년 입학하자마자 군에 갔던 정씨는 올해 초에 복학했다. "평범한 대학 1학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씨는 "최고 5만여명이 참여해 대회가 잘 치러졌다니 눈 하나를 잃어도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경희의료원 외과 2385호실에는 최규환씨(충북대 무역학과 4년)가 목과 가슴,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일그러진 붉은 피부 위에 검은 허물들이 뒤엉킨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최씨 역시 8월 15일 화염병을 들고 외국어대

정문을 지키다 전경들이 몰려들어 오며 던진 돌에 화염병이 깨지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것이다. 병상을 지키던 최씨의 어머니는 "처음에 와보니 상처에서 흐른 진물로 시트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며 "밤에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아이가 신음을 참다참다 운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를 보며 겸연쩍은 듯이 웃던 최씨는 기자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이제 다 이긴 싸움인데 이 정도 부상이야 별일 아다죠"라며 "누워 있을수록 오히려 통일은 이제 다됐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했다.

6·29선언이란 '공수표'가 89년 이후의 공안정국하에서 부도가 난 후 네 발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KP 등 신종 최루탄을 동원한 경찰의 근접 시위진압 전술로 시위 때마다 부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나 시위 때 부상한 부위가 별명으로 굳어져 '눈' '머리' '이빨'로 불리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

90년도 서강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정봉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89년 4월 연세대 연합집회에서 부상, 한쪽 눈을 실명한 그는 이듬해 총학생회장으로 일할 때 전교생 6천여명 중 2천6백여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울 정도로 성실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이 불편하다는 것을 일체 호소하지 않아 90년 이후 입학생들은 그의 부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간 전대협 정책위원회라 해서 수배를 당했던 최정봉씨는 이번 범민족대회 기간중 연행돼 현재 구속중이다.

91년 4월 20일 교내 시위중 KP직격탄에 맞아 두 눈을 다친 최강일씨(전남대 88학번)는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꺼번에 발사된 4발의 최루탄에 맞아 완전히 파열된 왼쪽 눈은 의안을 씌우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행히도 오른쪽 눈의 시력은 회복돼가고 있다.

"전남대 병원에 있을 때 승회가 분신해 병원으로 왔어요. 달려가 5월투쟁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죠..... 눈 하나 잃어도 아직 나에게는 남은 게 많아요. 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오기도 생깁니다. 눈 하나 뺏겼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투쟁중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다 육신의 일부를 잃었고 그 때문에라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물러설 수가 없다는 사람들. 특히 5공하에서 회복하기 힘든 부상을 입은 이들은 그간의 세월을 어떻게 헤쳐왔을까?

## 휠체어 위에서의 기나긴 모색

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일. 오전 11시 20분경 구로구

청에서 밀반출되던 부정투표함을 적발해 이를 지키다 12월 18일 새벽 투표함을 탈취하기 위해 진입한 무장전경들의 무자비한 구타로 실신한 채 5층 강당 창문으로 추락해 허반신이 마비된 양원태씨(당시 23세, 서울대 경영학과 84학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 9월 4일 기자는 구로 주공아파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자신의 방에서 휠체어를 굴리며 마루로 나오는 양원태씨가 보였다.

정갈한 그의 방안엔 책상과 1인용 침대,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오디오 시스템이, 발치엔 컴퓨터가 각각 놓여 있었다. 아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는 89년초 복학해서 올해초 대학을 졸업했고 작년부터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현실과 과학'지에 연구논문은 물론 발표한 바 있다. 견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대학과 연구소를 찾아다녔을까?

퇴원한 얼마 후 그는 운전연습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연세대 김찬국 부총장의 주선으로 기독교계와 해외동포들이 모금을 해 양씨는 특수 차량 한 대를 선물받았던 것이다. 당시에는 장애자용 차량이 생산되지 않아 일반 차량에 철공사에서 제작한 기기를 부착한 차였다. 남들처럼 운전학원에 나갈 수도 없었던 그는 면허 있는 친구들에게 운전 배워 89년 초에는 면허를 땀다. 이렇게 발(?)을 마련한 후 양씨는 행동반경을 대학과 연구소로 넓혀온 것이다.

컴퓨터는 언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퇴원 후 집에서 책 사다놓고 혼자 익혔다는 대답이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상심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리지만 제 자신이 몸 상태 때문에 절망한 적은 없어요. 무의미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그동안 자신의 몸에 적응하며 꾸준히 이루어온 일들을 보면 이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그가 이처럼 건강하게 지내을 수 있었던 것은, 외아들이 당한 일에 역장이 무너지면서도 아들을 이해하려는 부모님(그의 부친은 전교조로부터 제1회 참교사상을 수상한 풍문여고 양동식 교사)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기도 하다.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부터는 무엇을 할까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다치기 전의 운동방식과는 달라져야 하는데..... 공부는 무엇을 하든 필요한 것이니까 해왔구요,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운동을 실현시킬 길을 찾느라 기나긴 모색의 과정 속에 있다고나 할까요. 물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 '기적'을 보여준 양경희씨

현재 천주교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시위부상자 양경희씨(31, 연세대 아동학과 79학번)는 10년 세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다.

81년 11월 25일 연세대 학생회관 4층의 좁은 난간에 올라서서 시위를 주도하던 그는 사복경찰의 손아귀를 피하다 학생회관 앞 마당으로 떨어져 2년 2개월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허리뼈와 엉덩이뼈가 부서지고 뇌를 다쳐 의식을 잃은 그는 추락 3시간 후쯤 잠깐 정신이 들었다. 그의 한 후배는 이때의 대화를 잊지 못한다. 갑자기 눈을 뜬 양씨가 "어떻게 됐니?" 하기에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어" 했더니 옆굴에 다행이란 표정이 떠오르다가 바로 의식을 잃더라는 것이다.

하반신이 마비된 그는 1년반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걸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약속하지 못하는 휠체어 생활 속에서도 양씨는 '머리는 말짱하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불구속기소 상태였다. 하지만 5공의 검찰은 끊임없이 '구속하겠다'며 그를 위협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니 양씨는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는 처지. 이 구속의 위협이 24~5세의 수치심 많은 처녀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양경희씨는 중환자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받은 약식재판에서 끝내 '반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중환자실에서 나올 무렵 양씨는 한두 걸음씩은 때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수년에 걸친 '걷기'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그러나 84년초 양씨가 퇴원할 때 의사들의 가장 큰 기대치는 '혼자서 앉을 정도'였다. 그랬던 그가 요즘은 세상 속을 열심히 걸어다닌다. 세브란스 병원의 주치의조차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기까지 양씨가 얼마나 많은 절망의 굽이들을 넘어섰는지 오직 그 자신만이 알 뿐이다.

걸을 수 있게 된 뒤부터 그는 천주교 사회운동에 몸담아오고 있다. 천주교운동을 선택한 것은 기나긴 투병생활 동안 겪은 좌절과 극복의 과정에서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걷게 된 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택시를 타도 진동 때문에 힘들고 서 있을 때도 숨이 가쁘다"고 했다. 자연히 의욕만큼 몸이 따라주질 못했고 '병신'이라는 자의식이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곤



88년 12월 17일 '구로항쟁 계승대회'에 참석한 양원태씨 부자

**양원태씨가 이처럼 건강하게 지내을 수 있었던 것은, 외아들의 부상에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아들을 이해하려는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기도 하다.**

했다. 또한 '다시 마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감도 의식의 저변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는 나날이었다.

요즘 그는 "아프다는 상태와 더불어 사는 것을 체질화하여"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듯하다. 천주교 사회운동에 평생 힘을 쏟겠다는 결의로 그는 그의 어머니의 표현대로 "공공거리면서도 종일토록" 세상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 이을호·최정순씨 부부의 세상에 대한 꿈

그런데 위의 두 양씨와는 또 다르게 운동의 대열에 서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병을 얻은 이도 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상임위원회 전 부위원장 이을호씨(36, 서울대 철학과 74학번)가 그 사람이다.

85년 9월 4일 그가 김근태씨와 함께 안기부에 연행된 것은 '민추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서였다. 그러나 이는 곧, 당시 주목받던 조직인 민청련에 대한 수사로 전환됐고 이에 맞서 하부조직을 지키려던 두 사람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을호씨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것은 남영동에서였다. 9월 25일 검찰로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비로소 남편을 면회한 부인 최정순씨(35, 현 웅진문화 출판개발부 차장)는 충격과 절망으로 졸도를 했다고 한다.

10월 15일 이씨는 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됐다. 부인 최씨는 "정신병이 틀림없는데도 당국은 남편을 거의 1년간 붙들어두었다"며 "검사·판사가 병원으로 와 정신없는 사람 데리고 약식재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했다. 이듬해인 86년 6월 5일에야 이을호씨는 전혀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부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23일 이씨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로 악화되었다. 남편의 발작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최정순씨는 이때 남편을 입원시키며 "다시는 이 병원을 찾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안 보더라도 병원에 있는 동안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그는 다시 간병을 시작한다.

그 자신도 78년과 80년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활동가였던 최씨는 "이 사람이 병든 것도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려다가 일어난 일이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이런 한 남자를 살리는 것도 운동의 하나라고 마음을 먹은 뒤부터는 지내기가 좀 쉬워졌다"며 미소를 지었다. 아울러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오히려 "가족의 사랑이 있는 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87년 3월 23일 퇴원한 후 이을호씨는 항상 요양하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평생 재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치유됐다가도 절망이나 분노, 과로 같은 것이 겹치면 갑자기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27일 이을호씨는 또다시 발병,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정순씨는 "지금 우리 가정의 현안은 남편의 병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재발하더라도 간격이 길고 증상이 경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부부의 세상에 대한 꿈은 아직은 자제·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들 부부의 세상에 대한 꿈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서는 꿈이지요. 남편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느라 괴

로움을 겪고 있어요. 저 역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어쩔 수 없이 생활인이 돼버린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구요. 남편의 건강이 회복돼 우리의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민청련의 이론·정책 담당자로서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통해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이을호씨. 당시 '천재'라 불렸던 그가 어서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운동의 발전에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 부상 노동자 황천수씨의 절규

노동쟁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는 또 다른 절박함이 있다. 학생출신들에 비해 더욱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88년 6월 6일 대한광학에서 인원감축문제로 농성하던 중 구사대 폭력으로 허리 디스크를 얻고, 다시 10월 20일 퇴근 길에 신애전자 집회를 지켜보다 구사대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한 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피해를 당해 지난 3년간 입·퇴원을 되풀이하며 죽지 못해 살아온 셈입니다."

대한광학 전 노조위원장 황천수씨(29)의 말이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육체적 고통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구사대 폭력이 사회문제화되자 결국 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전신구타를 당해 부상한 몸으로 구속돼 있던 황천수씨 등은 석방, 복직됐다.

"제가 옥중에 있는 동안 노조집행부가 다시 꾸러졌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 부상자들의 보상문제에 대해 노조가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노조측의 입장은 "지금 조합이 보상문제로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황씨를 포함한 디스크 환자 3명은 9일간의 외로운 농성 끝에 보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이같은 개인적인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동료 부상자 송영호씨(23, 뇌손상)는 현재 저능아가 되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의 짐이 되고 있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모순에는 단호할지라도 동료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에는 그토록 냉담한 조합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한광학은 서울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의 결정적 계





시위자에게 KP 직격탄을 쓰고 방패로 찍고 군화로 짓밟는 근접 시위 진압술은 여전히다.

기가 된 회사였다. 따라서 대한광학 노동조합이 택하는 노선은 구로지역 노동운동권의 총체적인 모색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그를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몰아넣었다. 수축기 혈압이 30까지 떨어지는 건강상태에서 그는 "동료를 이렇게 대하는 운동으로 과연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겠는가?"를 물으며 심한 혼돈에 빠졌고 결국 운동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다가 황씨는 우연한 계기에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된다. 그것은 지난해말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도원 생활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간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간호했다.

"운동할 때는 사회현실을 외면하는 종교인들을 비난한 적이 많았는데 막상 가까이서 그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원의 헌신적인 종교인들은 거의 매일 2~3명의 죽음을 봐오면서도 그때마다 슬픔의

눈물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간 운동하면서 민중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이 분들과 같은 아가페적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뼈저리게 되문게 하더군요"

"구사대 폭력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 구사대에게 강간 당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이 여전히 방치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정치권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아닐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현재 민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버려진 이들'에게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신의 삶과 운동을 일치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한다.

### 성한 이들의 뭇은 무엇인가

이밖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많다.

5·18부상자동지회의 이지현씨(42)도 그중 한 사람이다. 80년 5월 23일 새벽 전남 도청에서 한 눈을 실명한 그는 그후 벌써 두번째 옥고를 치르고 지난 7월에 출소했다. 이씨는 "5·18이 정부의 보상금과 맞바꾸어진 풀이 된 마당에 내가 광주영령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5월 운동을 재정립해 92~93년의 민주정부수립에 기여함으로써 5·18정신을 지켜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지난 89년 4월 12일 학내 시위중 뇌를 다쳐 여전히 7~8세의 정신연령에 멈춰 있는 부산의 이경연양(25, 부산교대 윤리교육학과 86학번)도 있다. 그가 백골단의 방패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동료 학생들이 있는데도 법원은 이양의 부상원인을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그가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소견이다.

기자의 취재수첩에는 이밖에도 많은 부상자들의 피와 눈물의 기록들이 남아 있다. 투쟁의 현장이 그들의 육신에 남긴 상처들을 묵묵히 치유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은 성한 이들에게 강렬한 물음으로 다가온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취재수첩의 부상자 명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위자들에게 KP 직격탄을 퍼붓고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짓밟는 근접 시위진압술이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성한 이들이 해야 할 뭇은 무엇일까?



## 보안관찰법 관찰대상자를 찾고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준식씨(전민권인권위원장, 17년 복역후 출소)가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석방양심수들은 소위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목으로 보안관찰법의 굴레에 묶여왔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감시감독 아래 정기적인 사생활 신고를 강요하며 회합·통신 집회의 자유와 주거이전, 여행의 자유를 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현정권의 간악한 탄압도구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악법입니다.

이에(가칭)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에서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결의하고 보안관찰대상자 및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 보안관찰대상자는 아래의 주소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전화 혹은 편지를 주십시오.

\* 조사항목: 보안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처분일시, 갱신일시, 경찰의 관리, 감시방법, 동태파악 방식, 행동계약 유무, 기타 특별한 내용 등.

둘,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위해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구합니다.

농 협 : 027-01-396653 장기수  
국민은행 : 008-01-0506-759 장기수  
우 체 국 : 010793-0056721-12 노태훈

###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

주소 :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592-7(2층) (☎ 763-2606)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 준비모임(☎ 393-4662)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763-2606)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 277-6447)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764-0203)